

정순철을 생각함



전 경남민주주의청년연합 회장 송개형

1990년 8월 27일자 중.관동간호사회간담회 발언
현대민중정당 창당간담회 발언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우정과 의지로
모진 세월 헤치며 역사의 산새벽을 열자 다짐했지요.
시련의 역사, 그 투쟁의 한복판에서
함께 부대끼며 고통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거듭되는 수배와 투옥으로 이어지는
그 고난의 시절이야말로
짜라리 우리에게 영광이었는데도 모르겠습니다.

민통련이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그리고 진보적인 사회변화의 깃발을 내걸고 창립한지 20주년을 맞는다. 민통련은 80년대 중반의 정치적 격동기를 6월국민항쟁으로 승화시켜 군정 종식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민통련이 반독재투쟁의 명실상부한 전국적 구심점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시대의 요구와 함께 지역과 부문운동의 경험과 역량을 공동의 정치적 목표로 응집시키기 위한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운동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적 연대와 통일을 모색했던 지역 소장

활동가들의 확고한 유대와 일체감은 민통련 운동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각계 각층의 사회운동이 급속히 확산되고 진보와 정치변혁에 대한 열망이 충만해 가던 당 시에도 정작 독재정권에 맞서 전민항쟁의 불씨를 지켰던 것은 자기희생을 결단한 헌신적인 운동가들의 몫이었다. 승리에 대한 신념과 대중에 대한 낭만적 확신에 의지하며 민주변혁에 대한 희망과 긴급한 메시지를 전국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들 중 몇 명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11월 6일에는 또 한 사람의 소중한 동지인 정순철 형마저 망월동 한줌 흙으로 돌아갔다. 광주 미문화원방화사건의 주역, 광주전남의 청년운동가로 민통련에 참여하여 5·3인천투쟁 등에서 큰 활약을 펼쳤던 사람이다. 먼저 가신 동지들의 넋을 위로하며 정순철 동지의 삶을 거칠게나마 회고해 보고자 한다.

1980년 12월 9일 밤, 광주시내는 심한 바람과 함께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평상시 같으면 젊은이들로 몹시 북적대던 충장로 일대는 곳은 날씨 탓인지 이날 따라 이른 시간부터 사람의 발길이 잦아들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밤 10시경 광주시 황금동 광주 미문화원의 지붕 위로 시뻘건 불길의 치솟아 올랐다. 화염은 침묵과 정적에 잠긴 광주를 흔들어 깨우며 한동안 타오르고 있었다. 이 돌연한 사건은 당시 당국의 철저한 언론 통제로 사실 여부는 물론 그 진상이 철저히 은폐된 가운데 전기 누전에 의한 단순 화재로 축소 보도되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브라운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신군부의 집권과 광주학살을 방조한 미국에 대해 강력한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계획된 거사였음이 알려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미문화원에 검은 연기가 솟구친 뒤 얼마 후 근처 후미진 술집에서는 20대에서 40대로 보이는 일단의 사내들이 기쁨과 긴장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성공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광주 미문화원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그 주범인 정순철의 존재가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다. 그의 돌연한 출현에 의아심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가농(가톨릭농민회) 활동과 광주항쟁의 참여를 통해 나름대로 확고한 사회인식과 의지로 준비되어 있던 것 같다. 공범이었던 임중수는 당시의 정순철의 모습을 이렇게 회고한다.

“80년 겨울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계획된 우체국앞 가두시위가 무산된 직후 농성동 한전 부근 소주 코너에서 마주 앉았을 때, 내가 미 국무장관의 방한소식과 이란 혁명당 시 미문화원 테러사실을 이야기하자, 순철형은 술뚜껑만한 손으로 탁자를 탁 내리치며 ‘그

래, 바로 그거야. 광주 미문화원 방화!’ 라고 나지막하면서도 힘차게 외쳤다. … 진눈깨비 홀 날리던 겨울 밤, 순철형은 오성여관 창문을 타고 광주 미문화원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를 걷어내고 기름을 들어부으며 침착하게 불을 붙였다.”

옳다고 생각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독심과 배포로 밀어붙이는 정순철 동지의 모습을 너무도 잘 보여 주는 상황이다. 정순철 동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대단해서 광주 미문화원에 반미의 봉화를 올린 일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결국 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수배되고 1년반 동안의 도피 생활 끝에 체포된다. 5·18에 적극 가담한 혐의까지 추가되어 징역 5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는다. 내가 순철형을 만난 것은 그가 미문화원사건으로 구속되어 옥고를 치루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무렵이다. 그 때는 서로 수인사만 나누고 깊이 있게 교류치 않은 터라 흡사 노지심 같은 형상에다 위압적인 말투나 투박한 행동 등 단편적인 인상들이 썩 편치만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전남 민주주의청년연합을 통해서이다. 처음에는 솔직히 호감보다는 경계심이 앞섰다. 그러나 함께 전청련 운동을 이끌어가면서 곧 정이 들었고 우리는 동지로서의 신뢰는 물론 평생의 지기로서의 믿음과 우정을 쌓아가게 되었다. 나는 전청련 활동을 통해 비로소 순철형의 인간적인 면모와 진실, 그리고 민초적 근성과 의리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가 함께 활동했던 1980년대 중 후반은 군사정권의 모순이 심화되어감에 따라 정치,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어 수많은 사건들이 억압을 뚫고 터져 나오기 시작한 정치적 격동기였다. 우리는 지역 청년들을 모아 80년 이후 침체된 반독재투쟁의 대중적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민족민주운동의 전국적 연대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민통련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했다. 1986년이 되자 상황은 더욱 격화되고 야당마저 직선제개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게 된다. 광주에서 신민당의 개헌 현판식이 열리던 그해 3월 30일, 광주 YMCA를 중심으로 한 금남로 일대에는 10만여명의 군중이 운집했다. 예상을 뛰어넘은 인파에 당황한 신민당은 서둘러 집회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신영일을 비롯한 전청련 지도부의 적극적인 활약으로 신민당집회는 군사정권의 퇴진을 외치는 본격적인 대중시위로 발전하게 된다. 광주의 상황이 전해지자 민통련의 분위기는 흥분과 긴장으로 고무되었으며 3·30투쟁의 여파는 민통련의 주도하에 대구, 대전을 거쳐 5·3인천투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3·30투쟁을 군정종식을 위한 전민항쟁의 발화점으로 격발시키려던 전청련의 노력은 5·3인천투쟁 이후 전면적인 탄압에 봉착하고, 간부들 대부분이 구속 또는 수배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 때, 정순철 동지도 신영일, 장갑수와 함께 수배되어 장기간의 도

피생활에 들어가게 된다. 수배 중에도 87년 6월 항쟁에 이르는 일련의 정치적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이끌어 갔음은 물론이다.

6월항쟁 이후 일하는 청년을 중심으로 한 대중조직건설이라는 전청련의 노선 전환에 따라 순철형은 고향인 여수로 내려간다. 그곳에서 지역청년회를 만들고 한겨레 여수지국 등을 경영하면서 한동안은 바쁘게 살았다. 간혹 후배들과의 사소한 갈등과 불화의 소식도 들렸지만 직설적인 성격 탓이거나 생각하며 크게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수 생활이 썩 순조롭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청년회 활동도 막을 내리고 1991년에는 도의원에 출마하였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 사업에 손을 댔으나 번번히 실패하여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였다. 결혼 생활도 순탄치 못해 가정적으로도 안정과 여유를 찾기 어려웠으니 내색은 않았지만 친하의 정순철인들 어찌 가슴이 타들어가지 않았을까? 특히 사업 실패로 벼랑 끝에 몰려 전전공공하던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최근 몇 년 간은 상경하여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재기를 위해 발버둥치다 이제 좀 희망이 보이는가 싶더니 암이라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운명의 장난인가?

2004년 11월 8일, 우리는 슬픔과 비통함 속에서 비가 내리는 망월동에 순철형을 묻었다.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바위처럼 견고하고 잡초처럼 끈질겨서 좀처럼 주저앉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정순철이 아니던가? 장기표 선배의 말대로 암세포 쫓아야 뚝 떼어내고 확보할 것 같은 사람이었고, 하늘이 무너지면 솟아나고 땅이 내려앉으면 솟구쳐 오를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정순철 아닌가? 누가 그의 죽음을 선뜻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세상을 향해 걸죽한 육두문자라도 한바탕 걸지게 내지를 것 같은데, 끝내 망월동의 한줌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으니 어찌 슬프고 무상치 않을까?

그릇된 권위에는 절대 굴하지 않고 불의를 보면 분노하고 정의를 위해서는 불같이 행동할 줄 아는 사람, 정순철!!! 나는 그의 영전에 어설픈 추모사 몇 줄 바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 줄 것이 없었다.

순철형!

어찌 이렇게 황망히도 가실 수 있단 말이요. 형의 죽음을 알리는 돌연한 비보에 뒤늦은 자책과 회한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병석에서 뒤척이는 형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언뜻 스치는 불길한 예감 지울 수 없었지만, 뒤돌아 나와서 나는 당신을 잊고 내 갈길 가기에 바빴습

니다. 간암 말기의 시한부에 몰려 꺼져가는 형의 모습을 보고도 괜찮거니 하는 궁색한 위안으로 당신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가슴을 잃어버린 의례적인 안부 따위가 홀로 죽음과 맞서 싸우고 있었을 당신에게 무슨 위안이 되었더라 말입니까?

형!

한때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우정과 의리로 모진 세월 헤치며 역사의 신새벽을 열자 다짐했지요. 전청련에서 민통련으로, 5·18민중항쟁과 5·3인천사건, 6월항쟁에 이르는 시련의 역사, 그 투쟁의 한복판에서 함께 부대끼며 고통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거둬드는 수배와 투옥으로 이어지는 그 고난의 시절이야말로 차라리 우리에게 영광이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단한 세월, 궁핍한 현실 앞에 운동의 대의와 깃발은 퇴색하고 더러는 살길을 찾아, 혹은 명리를 쫓아 흩어지고 형은 빈 들판에 빛두레의 희망을 세우려 했지요. 그러나 무모한 용기와 독심 하나로 맞서기에는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평안도 사업의 성취도 냉정한 현실 앞에 무참히 찢기고 무너졌지요. 그리하여 형은 상처입은 야수처럼 오직 빈 몸뚱이 하나로 가락동시장 그 거친 삶의 한복판으로 뛰어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형!

물둥이를 머리에 이면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거둬드는 좌절과 재기의 몸부림 속에서 형은 그 잘난 자존심을 지키는 것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겉으로는 늘 용감하고 씩씩해서 세상의 모진 세파 속에서도 요지부동의 바위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형의 가슴 속 응어리진 한과 아픔이 당신의 육신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암덩어리로 자라나고 있었음을...

형!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형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얼마쯤 자리가 잡혀 새로운 희망과 용기로 사업과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형의 부재를 나는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순철형!

당신은 정말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까?

고난의 시대 그 험난한 세월을 들짐승처럼 불의와 폭압에 맞서 돌진하던 그 기상과 패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홀로 이방인을 자처하며 가락동 시장에서 모질게 재기의 걸기를 세우던 형의 모습은 어디로 갔나요? 야생의 뿌리처럼 강인하던 형의 생명력을 값어치를 만큼 세

상의 고통과 좌절이 것처럼 견디기 어려웠습니까? 세상은 형의 죽음 앞에 눈물 한줌 흘리기
인색하고, 세월은 무상하여 당신의 존재마저 잊을텐데 변변한 성취의 흔적하나 남기지 않고
억울해서 어떻게 눈이 감기더라 말이에요. 늙고 병든 어머니, 철도 채 안든 마루가 눈에 밝혀
어찌 떠날 수 있었던 말입니까?

형, 부끄럽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함께 했던 놈들이 형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따스한 위로의
말, 작별의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형을 홀로 떠나 보내고 말았습니다.

형, 죄송합니다.

당신과 함께 했던 날들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는 것으로 용서를 빌겠습니다. 투박한 몸짓
과 잡초같은 근성, 과장된 허세까지도 모두 당신에 대한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려
입니다.

순철형!

이제 힘들고 가슴 아픈 기억들, 세상의 무거운 짐일랑 훌훌 벗어 버리시오. 부디 이승의
모진 인연 다 끊으시고 무욕의 저 세상에서 한줄기 소슬바람처럼 자유롭게 영면하소서.

삼가 고인의 영전에 다시 한번 머리숙여 명복을 빕니다.